

하루를 시작하며



이 종 실
제주문화원 부원장·수필가·시인

제주시에서 ‘중앙로’는 시가지의 명칭으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다. 필자가 시골에서 제주 ‘성안(城內)’에 있는 중학교에 통학하던 시절, 도심은 단연 ‘관덕정마당’이었다. 주요 관공서들과 분수대가 있는 이곳은 칠성통과 남문통, 동문통과 서문통 등이 그 주변을 이뤘다. 그러다 오현단과 남문통 사이에 당시로서는 엄청 큰 길이 새로 났다. 이게 중앙로였다. ‘광양터미널’에서 출발한 시외버스들이 남문로 대신 여기를 지나 동·서문로 쪽으로 달렸다. 이 도로는 점차 교통

아, 제주시 중앙로

과 경제의 중심지가 됐다. 도로와 지역은 그 명칭에 걸맞은 기능을 하면서 특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감동과 추억을 품는다. 도로로서의 제주시 중앙로는 탐동에서부터 제주대학교 입구까지다. 이 도로는 소위 구제주의 주요 지역들을 거느리고 있다. 탐동광장, 중앙로, 시민회관, 시청, 대학로, 법원 사거리, 중앙여고 사거리, 제주여고 사거리, 제대병원 입구 등이 그 예다. 한편, 중앙로는 지역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근의 관덕정과 목관아지, 해변공원장과 탐동광장, 동문시장, 칠성로, 그리고 지하상가와 함께 성안의 주요 일원으로서 다운타운의 중심이 돼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요즘, 이 중앙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추진은 민주

적 절차에 따를 터이니, 어느 안(案)에 대하여 홀로 반대할 뜻은 없다. 다만 제주시가 분리되면 이 중앙로가 도로와 지역으로서 어떤 형태로 생존하고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게 궁금할 뿐이다. 중앙로가 반쪽 내는 제주 성(城)의 역사와 문화는 어떻게 유지될까. 무근성, 관덕정과 목관아는 서쪽 시에, 삼성혈, 굴림서원과 산지포구는 동쪽 시에 놓고, 일·이도동과 삼도동을 다른 시로 분리하면 서까지 추구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4개 시군 안’이 배제된 주요 이유가 ‘한라산의 남북 읍면 간에 오래된 역사와 문화의 격차’라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섬 역사의 중심에서 그 일과 문화를 지켜온 하나의 읍성을 둘로 나누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 제주목의 옛 성안만은 나눠지 않

고 하나로 유지되기를 소망한다. 두 개의 시가 동·서제주시로 명명되는 일도 없기를 바란다. 동·서부산업도로도 각각 번영로와 평화로로 불리는 시대다. 두 개의 시가 특징적 이름을 가질 요소가 없다면 분리의 명분이 ‘구·신제주’ 만큼도 없다는 방증이다. ‘제주성’은 죽이지(?) 말고 살릴 방도를 찾아보자. 성안에 속하는 구도심 지역에는 인근의 동·읍면을 합친 시와, 급속히 성장·발달하는 나머지 지역들로 이루는 시, 이렇게 둘로 하면 어떨까. 훌륭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이를 지닌 성(城)이 살아남아야 제대로 지켜진다. 외벽을 허무는 것은 확대의 과정일 수 있지만, 중심부를 쪼개는 것은 파괴와 해체의 시작이다. 중앙로가 도시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에서 제주 성안을 잘 지켜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설

도정은 내년 예산편성 도민 체감도 높여라

도민들은 제주도의 내년 예산편성 시 환경, 사회복지, 안전 분야에 우선 투자를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그제 공개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한 달가량 온라인과 설문지 현장 조사를 통해 도민 1474명이 답했다. 설문 결과 도민들이 선택한 우선 투자 순위는 환경(17.6%), 사회복지·보건(14.3%), 안전(12.4%), 교육(10.7%), 산업·기업 및 에너지(10.4%) 순이었다. 교통·물류(8.6%), 일반 행정(8.1%), 문화·체육·관광(7.0%), 농림·해양수산(6.0%)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일반행정은 비중이 커진 반면 문화·체육·관광은 후순위로 밀렸다. 분야별 우선순위는 ▷공공의료시설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

충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출산·아동보육지원 사업 등이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세출 효율화(47.2%)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30.4%)이 꼽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예산 활용과 재정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없는 돈 제대로 쓰라는 얘기다. 설문은 매년 실시되고 있다. 휴지 조각이 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설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피드백이다. 예산편성과 관련 도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제주도의 바람이 실현되길 바란다.

열린마당

오늘의 양심, 내일의 청렴



강 지 연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우리는 흔히 공직자의 최고 덕목으로 ‘청렴’을 꼽는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듯,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이다. 그러나 청렴은 공직자만의 덕목에 머물지 않는다. 청렴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떠받치는 토대이며,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줄을 설 때 새치기를 하지 않는 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일.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정직함이

곧 양심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순간의 불편함을 감내할 때, 그것은 결국 신뢰라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양심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멀리 떨어진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하고 싶을 때, 지인이 “이번만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해올 때... 우리는 유혹 앞에 흔들린다. 그러나 ‘이번 한 번쯤이야’라는 작은 타협이 쌓이면, 청렴은 무너지고, 신뢰는 사라진다. 순간의 편의를 이겨내고 원칙을 지켜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청렴을 실천하는 진정한 길이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내 양심에 솔직해지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한다. “오늘 내가 지킨 작은 양심이 내일의 큰 신뢰가 된다.” 이 한마디를 우리 모두의 좌우명으로 삼을 때, 청렴한 사회는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차 없는 거리’ 순회 이벤트 쏙쏙한 반응

일회성 행사에 효과 의문

○...올해 세 차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계획 중인 제주시가 오는 27일 연삼로 구간에서 자전거 대행진과 어우러진 두 번째 걷기 행사를 펼치는 가운데 제주시 사회 일각에서는 쏙쏙한 반응. 제주시 도심을 순회하며 몇 시간 동안 차로를 막고 걷기 행사를 이어오는 것에 대해 “차량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이용해 행사를 개최한다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걷기 실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 그보다는 일정한 구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이어가는 것과 함께 도심 속 시민 광장 조성 등 걷고 싶은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전선희기자

“배달 다화용기 주문 관심음”

○...제주시는 2일 연동주민센터에서 현장현답 ‘기부할 용기’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 다화용기 주문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기부하며 소통의 시간을 진행. 현장현답은 김완근 제주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험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는 소규모 소통 자리로,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13일부터 연동·노형 지역 88개 매장에서 시범 실시 중인 배달앱 다화용기 주문 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인센티브를 지역사회 기부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 김 시장은 “제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시범 실시 중인 배달앱 다화용기 주문 제도의 정착과 확산의 열쇠”라며 지속가능한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강조. 문미숙기자

‘제주 농어촌 유학’ 결실 맺어 확산시켜야

‘제주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이 본격 출범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학기 개학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 8곳에서 농어촌 유학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농어촌 유학은 타 시·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제주에 내려와 학교를 다니며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소규모 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타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이 일정 기간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함께 체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교육청이 농어촌 유학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92가구 136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통해 31가구 49명이 선정됐다. 도내 학교에서는 평대초, 흥산초 등 8곳이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유학에 참여하는 가구는 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에서 이주하는 가족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과 동일한 기준의 유학경비를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어촌지역 학교도 활기를 띠고 있다. 농어촌 유학에 참여하는 가구나 농어촌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흥산초는 지난 3월 신입생이 1명에 불과했으나 2학기에 1학년 유학생 4명이 전학오면서 학생 수가 5명으로 늘어 복식학년 편성을 면하게 됐다. 농어촌 유학 시범사업은 일단 산뜻하게 출발했다. 시범 사업이 결실이 맺어 내년에는 보다 많은 학교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 가구의 주거지 제공, 주거비 상향 등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엄마! 저녁에 **고등어 조림**해주세요 ~

여보~ 오늘 **칼칼한 갈치조림** 어때 ?!

바쁜 엄마도 이젠 안심!
아빠와 아이가 먼저 찾는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제주의 전통과 비법 양념을 그대로 담아, 온 가족 입맛을 사로잡는 풍성한 맛,
따뜻한 진짜 집밥의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세요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우리집 간편식으로,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

간편 조리식품 **고등어조림** 간편 조리식품 **갈치조림**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